

ICAP 아시아·태평양 알코올포럼

김영웅 기획조사팀

ICAP¹⁾(국제알코올정책연구소)는 2008년 6월 26일부터 2일간 싱가포르 Park Royal호텔 오션 룸에서 아시아·태평양 알코올 포럼을 개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포럼에는 1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주류산업종사자, 보건학자, 정부관계자 등 108명이 참가하였다.

본회(회장 : 김문환)에서는 이종진 상무이사 외 1명이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디아지오코리아, 오비맥주 등 회원사 임직원들도 참가를 하였다.



1) ICAP(International Center for Alcohol Policies)

1995년 11개 글로벌 메이저 주류업체가 설립한 연구소로 세계 알코올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류업계, 보건계, 정부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알코올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ICAP후원사 : 아사히맥주, 바카디, 빔 글로벌, 디아지오, 인베브, 브라운포맨, 페르노리카, 몰슨쿠어스, 하이네켄, SAB밀러, 스키티시&뉴캐슬

<ICAP 아시아·태평양 알코올포럼 한국참가단>



포럼 참가국(15개국)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위스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
호주	인도	필리핀	베트남	영국

참가자 구분

주류산업종사자	정부관계자	보건학자	기타	합계
44명	38명	8명	18명	108명

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글로벌 알코올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류업계, 정부관계자, 보건계 리더들이 모여 향후 상호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알코올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WHO는 1979년부터 음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주류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2005년부터 음주피해 감소 전략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왔다.

2007년 WHO정기총회에 상정되었던 알코올정책 결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되지 못하고 올해로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올해 5월에 열린 WHO정기총회에서 「해로운 음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Strategies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전 세계 WHO지역사무소와 회원국에 2010년 5월 정기총회까지 향후 2년 동안 글로벌 알코올전략을 수립하여 WHO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ICA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알코올정책 수립에 있어 주류업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요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였다.

2일간의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심도 깊은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WHO의 글로벌 알코올정책 진행 동향

WHO의 알코올정책 추진 동향 및 WHO서태평양지역사무소, WHO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동향 소개

발표자 : Brett BIVANS (ICAP 대외협력이사)

- WHO가 글로벌 알코올정책을 2010년까지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가 세계 주류업계, 보건계, 정부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임.
- WHO의 글로벌 알코올정책 수립 추진을 기회로 삼아 포괄적임과 동시에 주류업계 / 보건계간의 의견이 균형 잡힌 알코올정책이 수립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함.

세계 공중보건 동향

세계 공중보건 정책 동향분석을 통한 알코올정책의 진행방향 모색

발표자 : Mohan ISAAC (서호주대학교 정신보건학과장)

- 아시아지역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는 보건혜택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아시아지역의 음주역사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음주문화와 음주행태 역시 차별화되어 있음.
- 경제발전과 더불어 음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패턴 역시 변화고 있으나 알코올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의 음주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불법제조·유통 및 자가제조 주류의 음주가 많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임.
- 향후 지역별로 고유한 알코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반드시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용대비 효율이 좋은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임.

포괄적인 알코올정책 수립 전략

음주자·비음주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법 제시

발표자 : Keith EVANS (호주 알코올 & 약물관리청 상무이사)

- 효과적인 알코올정책은 음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알코올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음주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업측면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국가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하며, 사실에 입각한 실질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 정확한 정보전달 캠페인
 - 사회기반의 교육
 - 효과적인 알코올 관련 법
 - 법률 위반시 강한 처벌
 - 음주환경의 변화
 - 건전음주장려 활동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의 음주문화와 음주패턴

아시아 6개국의 음주문화와 음주로 인한 결과 비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교육/상담/조언

법에 의한 통제보다는 상담, 조언, 교육과 같은 홍보·교육활동이 음주피해 감소에 더 효과적임을 실례를 통해 증명

발표자 : John B. SAUNDERS (퀸즐랜드 & 시드니 대학교 교수)

-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로 인한 피해만을 강조하고 음주로 인한 혜택을 감추고 있으나 사실 음주로 인한 장점도 많음.
- 음주는 심신에 이로운 결과를 줄 수 있는데, 심장질환 예방 및 2형 당뇨, 담석증에 도움을 주는 등 음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인 이점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음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혜택에 대한 연구결과는 부족한 상황임.
- 효과적인 알코올정책은 비음주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음주자들의 폭음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포함해야 함.
- 학교교육 역시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른 매체를 통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며,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역시 그 예가 될 수 있음, 특히 가족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대비 효과가 뛰어남.
- 청소년, 임산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상담(교육, 상담, 조언)을 통해 음주피해 발생확율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그 예로 약 5분 정도의 교육 및 상담을 통해 30%의 음주피해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 및 상담은 병원, 쇼핑몰, 인터넷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음.
- WHO와의 공동연구 결과 간단한 교육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심도 깊은 상담 > 조언 및 상담 > 간단한 조언 > 강제적인 통제 순으로 나타났음.
- 즉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간단한 상담 및 조언이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협조방안

주류업계, 보건계, 정부, NGO 등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균형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자간의 상호협력을 요구

발표자 : Hurst HANNUM (홍콩대학교 법학 교수)

- 특정 정책에 대한 정부, 업계, 민간의 원활한 상호협력은 쉽지 않은 과제임.
- 이를 위해 오랜 시간동안 상호간의 논의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WHO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음주자의 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임.

알코올정책 수립을 위한 주류업계의 역할

주류업계는 단지 이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함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주류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건전음주 홍보활동을 소개

발표자 : John Pollaers (디이지오 아시아 · 태평양 회장)

- 디이지오는 음주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피해 모두를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주류업계, 유통업계, 소매업계 모두가 건전음주를 장려해야 함.
- 주류업체는 주류판매를 통한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 이를 위해 디이지오는 다양한 건전음주장려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고 등에 대한 자율규범을 설정하여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음.
- 또한 책임 있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자의 책임 있는 음주임, 따라서 디이지오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음주를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경제적, 보건적, 사회적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이지오가 노력할 것임.

발표자 : Tsuneari SAITO (일본맥주주조조합)

- 그동안 일본맥주주조조합은 미성년자 음주방지를 위해 일본양주주조협회, 국세청, 내각부, 경찰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전국고등학교PTA연합회, 일본PTA전국협의회, 전국양호교사협의회,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전일본중학교장회 등 많은 관련단체와 협조하고 있음.
- 특히 미성년자 음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문구를 만들어 주류 판매현장에 부착하였으며, 각종 포스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일본 맥주광고에는 미성년자 음주를 예방하자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결론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WHO는 향후 2년 안에 글로벌 알코올정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정책 수립에 있어 주류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류가격인상, 판매장소제한 등 주류소비를 강제로 줄이기 위한 규제는 불법주류의 유통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강제 규제가 아닌 주류업계의 자율규제 또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WHO에 증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 동의하였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류업계, 정부관계자, 보건계 리더들은 향후 효과적인 알코올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향후 1, 2년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본회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알코올정책을 선정하고, 향후 국내 알코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음주피해감소를 위한 주류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동참키 위해 소비자들의 건전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실제로 최근에 열린 2008년 대한민국 주류박람회기간중에 「주류산업과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류업계, 보건계, 학계, 언론매체 등 각계각층에서 모인 12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국내 주류업계의 건전음주문화 장려 노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점, 음식점 등 주류판매업소에서의 소비자 건전음주권장을 위해 ICAP에서 제작한 「주류판매자지침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정기 위생교육에 참가하는 음식점 및 주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침서 배포 및 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본회는 지난 2008년 9월 11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위생교육에 참가한 70여 명의 신규 단란주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2008년 10월말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대상자 500여 명을 상대로 동일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류 소비자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건전음주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바람직한 알코올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